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特務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인쇄인 金在克 TEL. 568-6651~2
ISSN 1227-7053 568-5595~6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月刊) 第108號

THE FISHING PORT NEWS

1996年 12月 25日(水曜日) [1]

工程 · 品質 · 人力 철저 管理 2種港 施工 技術指導 計劃

'97漁港시설事業費 1千7百17億 확정

내년도 어항시설사업비가 1천7백17억9천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보다 62억1천3백만원(3.8%)이 늘어난 수준이다.
항종별로 보면 해양수산부 개발항인 제1·3종어항 시설비는 1천3백32억9천만원으로 올해보다 62억1천3백만원(4.9%) 증가되었고, 시·도지사 관리항인 제2종어항은 3백85억원(지방비 50% 포

함)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1·3종어항 개발사업비 가운데 일반회계 5백31억3천4백만원중 2백64억원은 93년 이후에 착공하여 계속투자중에 있는 13개항에 집중투자할 예정이고 나머지 2백67억3천4백만원은 방파제 등 유지보강이 시급한 어항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농특회계 예산 8백1억5천6백만원은 92년 이전에 착공하여 계속투자 중에 있는 20개항에 시공가능 능력을 감안,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1·3종어항의 건설시공을 위하여 시공항에 대한 시공평가 및 건설시공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제2종어항 개발사업비 3백85억원 중 국비지원 1백92억5천만원은 각 시·도간의 균형개발과 안정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제2종어항을 건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기술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술자를 투입, 시공현장에 대한 공정, 품질, 인력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한편 부실한 점은 시정토록하며, 시·도 및 시·군 어항공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공기술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張丞玆 해양수산부 차관
정부는 12월 24일 장승우 통계청장을 해양수산부 차관을 대상으로 시공기술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임 장승우 차관 프로필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어 정책기획에 일가견이 있으며 특히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비판하는 강직한 성격이어서 큰 일을 할 것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부친이 지난 88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지사를 지낸 장형태씨(현 해양도시가스 회장), 취미는 등산과 야구.
▲전남 광주(48세) ▲서울대 상학과졸 ▲행시 7회 ▲기획원 종합기획과장 ▲기획원 공보관 ▲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재경원 제1차관 보 ▲통계청장.

1997년도 어항개발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항종	재원	'97예산(A)	'96예산(B)	증감(A-B, %)
계		171,790	165,577	6,213(3.8%)
제1·3종어항		133,290	127,077	6,213(4.9%)
	일반회계	53,134	38,477	14,657(38.1%)
	농특회계	80,156	88,600	△8,444(9.5%)
제2종어항		38,500	38,500	-
	농특회계	19,250	19,250	-
	지방비	19,250	19,250	-

또한 96년 올해가 시작될 때 대단한 포부와 각오로 한해를 열었다.
그동안 척박한 동토에서 겨우 싸움 띄어 풍전등화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해온 협회에게 올 한해만 더 노력하고 고생한다면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다.
어항연구를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연구원 충원, 또한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사업 수행 등 다가올 21세기 우리나라 어항산업의 기초가 될 토양 마련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산된대 대해 큰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무산이 협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으로는 그것을 과도적 일시적인 현상임을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었다. 도도하게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는 그 누구도 감히 거스릴 수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말이다.
그래서 협회는 우선 협회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기로 작정했다. 어항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각종 정기 간행물을 단 한차례도 거르지 않고 발간하여 어항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협회가 아니면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은 한국 어항사를 집대성해 발간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한 차례로 끝나는 선진어항시찰을 올해는 2회 실시하여 어항에 대한 관심과 개발의욕을 더욱 확산시켰는가 하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될 우리나라 어항산업의 미래에 대비해 사무실을 확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협회의 일련의 사업결과가 어찌 보면 미미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있다는 말

연말은 가는 해이기에 아쉽고, 새해는 오는 해이기에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어항협회 역시 아쉬움이 많은 올 한해가 아닐 수 없다. 무언가 될 듯 될 듯 하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사업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항상 희망적인 해이므로 협회

처럼 그 누군가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항산업은 미래가 있을 수 없으며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OECD가입과 WTO 출범으로 새해부터 쏟아져 들어올 무차별 국제조류에 아무런 준비없이 우리가 힘싸이면 우리의 어항산업은 간단없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엄연한 현실과 위기감을 모든 어항인이 가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날로 황폐화 돼가는 어항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
따라서 협회는 올해의 여러 가지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더 큰 일을 해 낼 수 있는 토대와 단련의 과정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끝에는 충분한 승산이 있음도 확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희망적이면서도 튼튼한 응원군은 다름아닌 해양수산부의 출범이다. 모든 바다를 한꺼번에 관장할 수 있는 전문부처의 신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어항인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 올해 어항인들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 새해에는 결단코 뛰어야 한다. 그것도 가까이 아닌 아주 멀리 뛰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협회와 어항인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꿈과 희망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다고.
기왕에 꿈과 희망을 갖자면 큰 꿈과 희망을 갖자. 우리의 목표가 같다면 이제는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이런 의욕만 있다면 우리 앞에는 난관이란 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새해에는 어항인들 스스로가 어항산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그런 해가 되어야만 한다.
올 연말을 이러한 각오로 단단히 다지는 시간으로 삼으며 새해를 맞이하자.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또한 96년 올해가 시작될 때 대단한 포부와 각오로 한해를 열었다.
그동안 척박한 동토에서 겨우 싸움 띄어 풍전등화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해온 협회에게 올 한해만 더 노력하고 고생한다면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다.
어항연구를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연구원 충원, 또한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사업 수행 등 다가올 21세기 우리나라 어항산업의 기초가 될 토양 마련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산된대 대해 큰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무산이 협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으로는 그것을 과도적 일시적인 현상임을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었다. 도도하게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는 그 누구도 감히 거스릴 수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말이다.
그래서 협회는 우선 협회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기로 작정했다. 어항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각종 정기 간행물을 단 한차례도 거르지 않고 발간하여 어항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협회가 아니면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은 한국 어항사를 집대성해 발간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한 차례로 끝나는 선진어항시찰을 올해는 2회 실시하여 어항에 대한 관심과 개발의욕을 더욱 확산시켰는가 하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될 우리나라 어항산업의 미래에 대비해 사무실을 확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협회의 일련의 사업결과가 어찌 보면 미미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있다는 말

있다는 엄연한 현실과 위기감을 모든 어항인이 가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날로 황폐화 돼가는 어항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
따라서 협회는 올해의 여러 가지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더 큰 일을 해 낼 수 있는 토대와 단련의 과정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끝에는 충분한 승산이 있음도 확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희망적이면서도 튼튼한 응원군은 다름아닌 해양수산부의 출범이다. 모든 바다를 한꺼번에 관장할 수 있는 전문부처의 신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어항인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 올해 어항인들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 새해에는 결단코 뛰어야 한다. 그것도 가까이 아닌 아주 멀리 뛰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협회와 어항인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꿈과 희망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다고.
기왕에 꿈과 희망을 갖자면 큰 꿈과 희망을 갖자. 우리의 목표가 같다면 이제는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이런 의욕만 있다면 우리 앞에는 난관이란 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새해에는 어항인들 스스로가 어항산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그런 해가 되어야만 한다.
올 연말을 이러한 각오로 단단히 다지는 시간으로 삼으며 새해를 맞이하자.

새해에는 해양수산부에 큰 기대
미래어항발전 위한 값진 경험 얻어

연안항 漁港관련施設 增 · 改築

14개항에 4百88億원 투입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연안항 건설(어항관련 시설)사업에 4백88억원으로 방파제 물양장 등을 축조할 계획이다(표 참고). 또 기존시설의 증 개축 및 유지보수 준설사업에는 8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8개 연안항중 내년도에 연평도항 등 14개항에 어항관련 시설을 축조하는 한편, 거문도 등 3개항에는 유지보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24개 일반항 건설사업중 포항 목호 등 4개 무역항과 주문진 거문도 등 3개 연안항에 방파제 안벽 등 항만시설을 오는 2000년까지 대폭 확충키로 했다.

1997년도 연안항 건설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항 별	사업비	사업량
계	48,805	
연평도항	1,582	방파제보강 348m
대천항	3,800	물양장 50m, 방파제 100m, 가호안345m 등
비인항	1,000	물양장 70m
대흑산도항	2,108	안벽 60m
홍도항	3,111	선착장 56m 등
녹동신항	3,132	가호안 300m, 어업권 보강
나로도항	1,371	물양장 18m 등
구룡포항	1,500	방파제 10m, 물양장 30m, 가호안 20m
후포항	1,621	방파제 15m
울릉(사동)항	5,263	방파제 70m
화순항	3,169	방파제 60m
성산포항	4,115	방파제 40m, 안벽포장 1식
한림항	2,861	안벽 68m, 준설 1식
부산남항	3,016	동방파제 70m
낙도선착장	8,932	물양장 40m, 부지조성 756㎡ 등
연안항개발 실시체계	630	실시체계 1식
함선유지관리 및 부대비	1,594	함선유지보수 등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들 7개항의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말까지 추진, 오는 98년부터 본격 항만시설 확충에 들어가기로 했다.
무역항의 경우 2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대신항에 항만시설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나서는 한편 장항항에는 안벽시설을 확충키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연안항 개발의 경우에는 7억원을 들여 주문진항과 거문도항에 방파제와 물양장을 대폭 확충키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대흑산도항에는 카페리부두 건설을 검토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7개 일반항 건설사업 외에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포항에도 내년부터 1백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파제시설을 크게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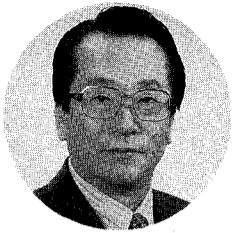
2千년까지 대신항등 7個港 시설 확충 해상물량 적극 수송 지원

오는 98년부터 대신항과 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물동량 반항에 방파제 안벽 등 항만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해

동

정

「새로운 해양시대의 정책과제」 주제 강연



辛相佑 해양수산부장관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6일 여수 광양지역을 방문 항만건설 현장을 둘러 보고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 11일에는 노보텔호텔에서 열린 한국유통학회 주최 제9회 유통포럼에 연사로 참석하여 「새로운 해양시대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강연, 13일에는 서해접적해역을 경비하고 있는 인천해경함정을 방문,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전경들의 노고를 치하.



孫井植 한국어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협회장은 12월 4일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동계학술대회「행정개혁과 정책조정」및 96년도 정기총회에 참석, 5일에는 협회 회의실에서 제1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을 심의



한국어협회는 12월5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3차 이사회를 개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심의 확정했다.

확정, 16일에는 고려대학교 인촌회관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주최 한승수 부총리 초청강연에 참석, 18일에는 어항청소선 선장회의를 소집,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어항청소 및 어항환경정화 운동에 더욱 철저히 임해줄 것을 당부, 19일에는 63빌딩에서 열린 신한국당 중앙당후원행사에 참석, 20일에는 강남구 개포동소재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금일봉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12월 9일 수협회의실에서 농수축협중앙협의회 정례모임을 갖고 금융자율화에 대응한 신용사업 경쟁력강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19일에는 수협유통 여행사업본부 개업식에 참석.

▲안성봉 한국어언협회장은 12월 9일 부산지부회의실에서

서 전국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96년 평가회를 개최.

▲최상욱 남화도건주식회사 회장은 12월 3일 여수수산대학교 총장취임식에 참석, 5일에는 4H 후원회이사회에 참석, 9일에는 21세기발전협의회에 참석, 10일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제13회 청소년선도대상 시상식에 참석, 12일에는 대한체육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 17일에는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남지회 송년간담회에 참석, 18일에는 한국체육기자연맹 체육대상 시상 및 체육기자의밤 행사에 참석, 19일에는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광주 전남지부 송년간담회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12월 13일 광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

회를 개최.
▲장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12월 3일 한국항만협회 이사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2월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회에 참석, 6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유학생장학금 전달식에 참석, 11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단 간담회에 참석, 16일에는 전남도의회 건설위원회 초청간담회에 참석, 17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단 간담회에 참석, 20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위원회 및 임시의원총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2월 5일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송년의밤 행사에 참석, 7일에는 한중우호교류협회 창립총회에 참석, 9일에는 21세기정책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11일에는 서울대 법대 제11회 정기총회에 참석, 16일에는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에 참석, 17일에는 신한국당 재정위원회와대 초청오찬에 참석.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2월 5일 한국정책연구원 송년간담회에 참석, 6일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 가두캠페인을 개최, 17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단 간담회에 참석, 20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 평가회의를 개최, 이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2월 16일 진도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을 격려.
▲임제호 삼오종합건설주식

회사 사장은 12월 14일 제주상공회의소 임시의원총회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상호종합건설 회장은 12월 9일 삼천포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을 격려.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과장급 전보 △행정관리담당관 김덕일 △분부대기 문형근(12월 11일자), 국장급 전보 △공보관 박옥중 △중앙공무원교육원 과장 박원경(12월 16일), 서기관 승진 △공보관실 김석구 △감사관실 김대진 △총무과 이장우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해남 △투자심사담당관실 이홍식 △정책총괄과 우예중 △해양개발과 장황호 정진영 △어선과 이준양 △해양안전과 김석진 △해양정책과 주교필 △외항과 김성용 △항만정책과 박규현 △항만운영과 정영모 정봉섭 △수산정책과 유병수 △수산기공과 정재춘 △어업인복지과 김중봉 △어장보전과 김영대 △항만건설기획과 이재완 △건설과 나원균 연영진 △산업항과 최중문 △신항만기술과 강범구 △국제협력관실 박영선 △내항과 이장훈 △표지와 김형목 △남해어항사무소 심영 △국립수산진흥원사무과 전영광 △동해해안심판원 조병용 <국립해양조사원>△관리과 신수균 △해양과 한길수 △해도와 이상업 <지방해양항만청> △동해-총무과장 이능호 △울산-공사과장 김정수 △인천-해무과 과장경진 △여수항건설사무소장 윤병구(12월

20일자).
의 속
▲송재성(주식회사상호종합건설 회장)씨의 차남 창현군은 지난 12월 6일 강남 신사동 소재 만리장성에서 화축을 밝혔다.

변경

▲이광조씨(국동전선공업주식회사 이사)는 최근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47-4호로 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0345) 417-3706.

의 비 남 부

- 단체
 -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회장 정윤삼)
 - ▲광남개발주식회사(사장 김성식)
 - ▲주식회사대우엔지니어링(사장 남정현)
- 개인
 - ▲성기현씨(한국어업기술훈련소 소장)
 - ▲이전호씨(해양수산부 어항과장)
 - ▲정창세씨(한국원양어업협회 부회장)
 - ▲전정진씨(수협중앙회 미야동지점장)
 - ▲김중희씨(전 한국수산회 전무이사)
 - ▲서기덕씨(전 대건중기 근무)
 - ▲최병원씨(전 수산청 근무)
 - ▲신순균씨(해양수산부 어항과)
 - ▲문용근씨(해양수산부 어항과)

漁港工事 특수성 감안 '工區別' 용어 삭제돼야

'국가를당사자로하는...' 등 제도개선 건의

韓國漁港協會
한국어협회는 최근 어항 시공업체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제2호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에서 '공구별'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줄 것과, 또 도시계획법령에 규정된 '토석채취 인·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을 현행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증서 외에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도 예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 관련당국에 각각 건의했다.
한국어협회는 어항공사가 공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분할발주가 불가피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구별로

이뤄지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법시행령 제68조 제2호의 규정된 '공구별'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매년 공사계약시에 분할발주의 적용가능 여부를 놓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집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계획법령상 토석채취 인·허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예치방법에 대해서

도 타법령에는 인·허가보증을 포함한 건설관련 보증을 법률상 같은 효력을 가진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도시계획법령에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어, 이로인해 영세한 어항건설업체들은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과다지출 부담과 보증서

발급에 따른 일정액의 채권 또는 담보 제공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어협회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각 법령개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시설공사 관리비 대폭 현실화

건교부 건설기술 관리법 개정안 최종 확정

앞으로 시설공사의 품질관리비가 대폭 현실화 되고 안전관리비용 부담자가 발주자로 일원화 된다.
이와함께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제가 도입되며 우수용역 및 건설업자 지정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최종 확정, 97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품질시험과 관련한 시험기구의 손료와 공공요금 인건비 등 일부 비용만을 계상하도록 했던 것을 고쳐 시설공사

의 품질관리비에 품질교육훈련비 등을 추가하도록하는 한편 반드시 공사금액에 비용을 계상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공사의 정보화를 촉진키 위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계약 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건

설정보통합 전산망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용역업자로부터 미리 설계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정부는 건기법 개정을 통해 설계 건설자재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 하도록 하고 표준화를 촉진키 위해 필요할 경우 설계자 생산업자 및 건설업자에게 시험생산 시험시공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會計例規 則 · 개정 추진

재경원 공사계약 一般條件 등 34種

재정경제원은 정부조달제도개선안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적격심사기준 등 34종의 회계예규와 고시의 제정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등의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조달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한 회계예규와 고시 등을 제·개정하는 등 정비하기로 하고 이달중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재경원이 이들 회계예규와 고시를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한 것은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따른 조달제도 개선

의 세부내용을 정해 일선 계약관련 부서에서 원활한 조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원이 제정을 추진중인 예규는 건설업계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난 93년 9월에서 95년 7월까지 건설업체들이 현금으로 제출한 차액보증금을 공정이 50%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기성률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후 현금으로 반환해 주도록 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 부칙에 의거, 반환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점검과 보증서 대체방법 및 현금반환절차 등을 규정할 차액보증금 반환관련 예규와 공사이행보증제도 도입과 관련된 예규 등이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 90%로 상향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계속 시행키로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가 58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제한적최저가 낙찰제의 낙찰하한률이 9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지역제한입찰의 한도액이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고속도로 공사와 교량 상하수도 공동주택 등 일부공종의 소규모 공사가 PQ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에너지

시설공사가 추가되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58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시행된다.

이와함께 예가의 70% 미만으로 저가입찰해 현금으로 차액보증금을 납부한 업체들은 공사가 50% 이상 진척됐을 경우 기성률에 따라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조달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하고 현재 1백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제한적최저가 낙찰제를 개방대상 공사금액인 58억원(용역은 1억5천만원)미만으로 축소하고 이와 함께 1백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던 적격심사 낙찰제는

58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1백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제한적최저가 낙찰제는 내년부터 58억원 미만 공사로 축소하고 낙찰하한율은 중소기업 보호와 부실방지를 위해 예가의 88%에서 90%로 2%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시장개방전인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되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설업체의 보호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에도 58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하고 현재 20억원인 지역제한 입찰공사의 한도액을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난 93년 9월부터 95년 7월

구조물耐震설계기준 새로 마련 교량·港灣·건축물 등에 適用

최근들어 잦아지고 있는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량 철도 댐 공항 항만 도로 건축물 등 모든 구조물에 98년부터 한국형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4일 시행중인 내진설계기준이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미흡하다고 보고 주요 구조물별로 우리 지반의 특성에 맞는 세부 내진설계기준을 내년말까지 마련,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오는 98년부터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모든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터

널 댐 등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는 구조물에 새로 마련되는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강진 지역과 중진지역으로 단층하게 설정돼 있는 현행 지진구역이 비과학적으로 나누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의 지진발생 현상 등을 토대로 지진구역을 정밀하게 재조정할 방침이다.

또 내진설계를 감리하는 설계감리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유도하고 서로다른 건축물표준시방서와 도로교량 표준시방서의 설계기준도 통일시키기로 했다.

사이에 예정가격의 70% 미만에서 저가투찰, 현금으로 납부한 차액보증금을 업체의 기성률에 따라 현금으로 반환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동일구조물공사의 경우 설계시 의무적으로 전체 사업내용을 일괄확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발주관서

가 당해공사의 특성과 예산사정 등을 감안, 일괄설계 여부를 임의로 결정토록 했으며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부대입찰의 대상을 1백억원 이상 공사중 PQ대상공사에서 1백억원 이상 모든 공사(터키공사 등 제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도급 저가 심사 기준 제정

재경원 경쟁력 강화위해 실질 심사

저가하도급공사에 대한 심사기준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저가하도급공사의 적정한 이행가능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하도급심사기준을 제정하기로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하도급에 관한 지침 개정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현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하도급금액이 88% 미만일 때는 하도급공사의 성질과 이행의 난이도, 공사량의 다과, 하도급계약체결 방법 및 계약대상자와 하도급자의 의견을 참작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모호해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실질적인 저가심사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하도급기준이 제정되면 이 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결정되되 필요한 경우 배점한도의 1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업법과 하도급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도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하도급자의 권익을 국가가 보호하고 적절한 공사비 지급을 통한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하도급저가심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일정한 심사기준이 없는데다 88% 미만 하도급을 일체 불허하고 있어 일반건설업체들이 이의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에서도 기준을 제시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저가심사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적정工費확보 턴키 활성화 도모

턴키(설계 시공 일괄입찰) 공사 적격심사 기준의 가격점수 산정방식을 개선, 평균 응찰가에 근접한 가격을 써 넣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턴키공사도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한편 턴키공사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현재 최저가 응찰업체에 유리하도록 돼 있는 턴키공사 적격심사기준 가격점수 산정방식을 바꿔 평균 응찰가에 근접한 응찰자일수록 높은 점

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지 턴키공사 적격심사기준의 경우 대부분 발주처에서 공사수행능력에 35점, 설계평가에 35점, 입찰가격에 30점씩을 배정한 후 입찰가격 평가는 예산액의 70% 이상 최저가 응찰업체가 유리하게 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국내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턴키공사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규 항만공사 10건 내년 착공

총사업비 4조 7백억원 투입

부산 가덕도신항 등 10건의 신규항만공사가 내년부터 본격 착수된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신규항만공사 시행계획에 따르면 부산 가덕도신항 등 5개 신항만건설사업을 비롯하여 아산항 2단계 서부두건설, 광양항 서측도로건설 등 10건의 신규항만공사를 내년부터 본격 착수키로 했다.

이들 10건의 항만공사에는 총 4조7백억원의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입되며 내년에는 2천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사업별 시행계획을 보면 우선 가덕도신항의 경우 1조7천1백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파제 1천6백m와 호안 8천9백m를 오는 2011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또 울산신항에 1조2백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방파제 3천6백m와 가호안 2천2백m를 연차적으로 건설하는 한편 인천북항에도 7백34억원을 들여 호안 2천5백m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포함영일만 신항에 6천8백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안벽 5백m와 방파제

8천8백m를 건설하는 한편 목포신외항에도 3천2백4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벽 1천3백m와 진입도로 5천m를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항 건설사업으로는 부산항 2부두와 중앙부두 확장에 7백62억원, 광양항 서측도로 건설에 6백40억원, 아산항 2단계 개발사업의 서측부두건설에 4백75억원, 여천항 가호안 건설에 4백28억원, 목포항 임항도로 건설에 8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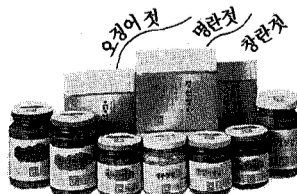


“식욕이 팍팍 땡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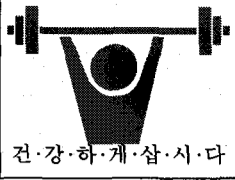
0℃~2℃의 빙온숙성으로 제대로 만든 한성젓갈-젓갈고유의 감칠맛이 그대로 살아 있어 입맛 찾는다는 그만입니다.

식욕돋구는 반찬중에 젓갈만한 게 또 있나요?
깔깔한 입맛을 돋구워주는 그 감칠맛-그렇다고 아무 젓갈이나 고르지는 마세요.
무엇보다도 숙성을 어떻게 했나 따져보고 고르셔야 돼요.
한성젓갈은 한성의 노하우인 0℃~2℃의 빙온에서 숙성하기 때문에 맛이 변질되거나 삭지 않고 젓갈고유의 감칠맛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게다가 저염도라 짜지도 않습니다. 이젠 한성젓갈로 입맛을 찾아주세요. 참, 그대신 식사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작아났다!
죽었다!
입맛!
- 역시 한성젓갈이야!



한성젓갈



기관지염

기상과 동시에 5분씩
건포마찰 계속

급성기관지염
인플루엔자(유행성 감기, 독감)나 감기가 유행하면 폐렴이나 기관지염도 많아진다. 특히 노인이나 유아가 걸리기 쉽고, 폐결핵을 앓았거나 후파성형술을 받은 사람은 주의하지 않으면 앓는다. 유행성감기는 2-3일이면 좋아지지만 전신의 저항력이 약해진 사람은 유행성감기에 의한 발열이 계속됨과 동시에 세균감염을 초래해서 급성기관지염을 일으킨다. 원래 유행성감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되므로 항생물질 즉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클로로마이신 같은 것은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 그러므로 해열제를 복용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폐결핵을 앓은 사람, 폐활량이 적은 사람은 더욱 평상시의 영양에 주의를 기울여 저항력을 길러두는게 좋다. 또 서둘러서 예방주사도 맞아야 한다. 체력증강을 위해서 초가을부터 기상과 동시에 5분간쯤 잠자리에서 건포마찰을 하는 습관을 길러 둔다. 이런 정도라면 별로 어려움이 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제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실행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

만성기관지염
급성기관지염이 낫지 않고 오래되면 만성기관지염이 된다. 특히 노인들이 유행성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상태는 좋아지더

라도 기침을 할적마다 담이 나온다.

또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먼지나 스모그 때문에 만성 기관지염이 되는 경우가 최근에 와서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만성기관지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인데, 영국은 안개와 매연이 스모그를 이루어서 만성기관지염의 발생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포레트라는 의학자가 내건 만성기관지염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에 통용되고 있다. 즉 2년 이상에 걸쳐 적어도 1년에 2-3개월 정도는 매일 담이나 기침이 나오는 상태를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노인에게 특히 많다.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점차 오래되면 빨리 걸을 때 숨이 가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몹시 차서 한참 쉬지 않고는 못 오르게 된다.

담도 급성기관지염 때와는 달리 짙은 담이 아닌 검은 먼지가 많이 빨아들인 흑색이나 회색을 띤 담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그러므로 담이나 기침이 계속될 때에는 먼지가 많은 환경을 피해야 하며 만일 그럴 형편이 못된다면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교외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해야 한다. 담배는 기침을 유발하므로 끊어야 한다.

만성기관지염이 더 진전되면 폐기종이 되고, 다시 폐성심이라는 상태에서 심부전을 일으켜서 사망하는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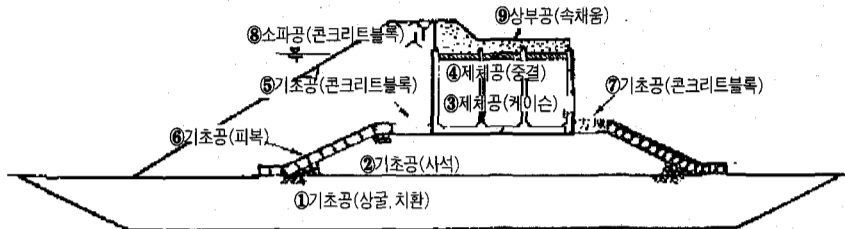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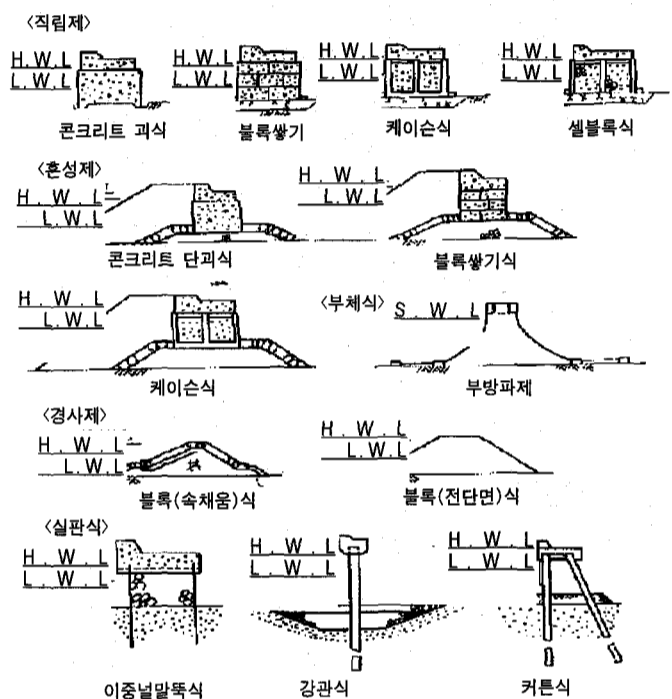
1.3 외곽시설
(1) 방파제
① 기본적인 형식·구조
방파제의 기본적인 형식·구조를 그림 1.3.1에 제시한다.

또 각종 방파제의 구조를 모식도에 제시하면 그림 1.3.2와 같다.
② 방파제의 공종
a. 케이슨식 방파제
케이슨식 방파제는 기초공(제2장

사석, 피 및 밀다짐), 제체공(제6장 케이슨공, 제11장 속채움공), 상부공(제12장 상부공), 소파공(제7장 콘크리트블록공) 등의 공종으로 구성된다.



1.3.1 케이슨식 혼성제의 공종구성



1.3.2 각종방파제의 구조의 모식도

97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세무서에 매매내용을 신고하고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납세자들이 예정신고기간(양도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중에 양도소득세를 내면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제의 시행으로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됨에 따라 왕복민원우편신고제를 도입,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신고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양도 신고제의 시행으로 밀린 세금의 정리업무가 크게 줄고 과세자료의 조기처리 등에 따라 조세마찰 및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양도 사전신고 절차 등을 문답으로 안내한다.

신고는 누가 하나.
양도인이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대리인이나 양수인이 할 수도 있다.

어디에 신고하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부동산 양도 신고제 문답풀이

2개월 이내 납부땀 세액 15% 공제

에 신고하는게 원칙이며, 공동 소유 등으로 양도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자중 한사람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관할이 아닌 세무서도 가능하며 우체국에 가셔도 신고서류를 접수시킬 수 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및 우체국에 비치된 신고서 이면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적사항과 양도부동산을 기재, 제출하면 된다. 양도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첨부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신고 확인서는 받을 수 있으나 15%의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

양도 부동산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이면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함께 내면 된다.

신고제의 대상은
등기상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갖고있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과

산신고에 의한 처분 경매 판결 화해 등 이와 유사한 법률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또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으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하나
하지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고를 하고 일정기일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게 유리하다.

8년 이상을 보유했으나 직접 농사짓지 않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는 없다. 그러나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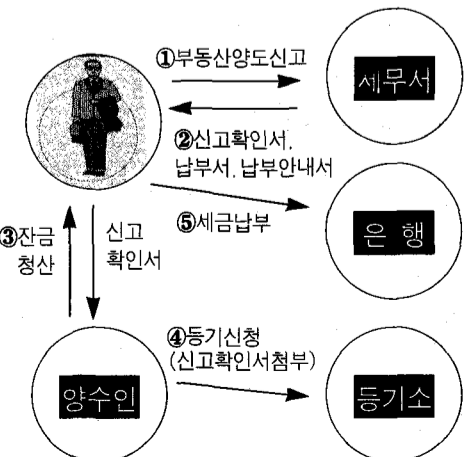
신고를 했으나 잔금계산이 늦어져 납부세액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고 후 아직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으면 발급받은 신고 확인서를 반납하고 새로 신고를 하거나 변동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기 이전을 마쳤더라도 예정신고 기간 중에 변동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양도인이 직접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나

기준값에 의해 신고할 때는 세무서에서 계산을 해 준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라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 양도 신고서는 한부만 작성하고 양수인의 명세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 확인서는 신고인이 요구한대로 필요한 수량만큼 발급받을 수 있다.



생활정보